Journal of the Ergonomics Society of Korea
Vol. 26, No. 3 pp.1-9, August 2007

작업치료사의 직무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양영애[1] · 허진강[2] · 노영만[3] · 이규창[4]

[1]인제대학교 의생명공학대학 작업치료학과 · 의생명공학원 / [2]한림성심대학 물리치료과
[3]한양대학교 환경 및 산업의학연구소 / [4]한림대학교 강동성심병원 물리치료실

The Study of Job Stress in Occupational Therapist

Young Ae Yang[1], Jin Gang Hur[2], Young Man Noh[3], Gyu Chang Lee[4]

[1]Department of Occupational Therapy, College of Biomedical Science and Engineering, Institute of Biomedical Engineering, Inje University, Gimhae, 621-749
[2]Department of Physical Therapy, Hallym College, Chuncheon, 200-853
[3]Department of Institute of Environmental and Industrial Medicine, Hanyang University, Seoul, 133-791
[4]Department of Physical Therapy, Kangdong Sacred Heart Hospital, Hallym Medical Center, Seoul, 134-701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going to research relation of job stress and society psychologic stres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 work characteristic, health characteristic and personality characteristic for the occupational therapist in the working domestic rehabilitation therapy with hospital and welfare center occupational therapist. The research was 91 of withdrawal questionnaire among 102 occupational therapist from 1. November 2005 to 31. December 2005. In the result of analysis the given question for the ninety one occupational therapist showed just normal group 25% 23 person, potential stress group 47% 43 person, and the rest 28% 25 person high risk group. The result shows significance different in general characteristic of job stress about age, final scholarship and marriage. Job stress was included income, working time, office form and working position etc. Health special job stress was significance different according to sleep time. So we have to know a fact of job stress of occupational therapist and prevent of loss of business services. And we have to endeavoring removals factor of stress and good office culture fixation.

Keyword: Job stress, Society psychologic stress, Occupational therapist

1. 서 론

노인인구와 만성퇴행성 환자가 증가하면서 재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됨에 따라 의료전문 직종의 하나인 작업치료사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기대와 요구가 점차 커지면서 환자의 재활에 작업치료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게 되었다(양영애, 2005).

작업치료란 신체적, 정신적 그리고 발달과정에서 어떠한 이유로 기능이 저하된 사람에게 의미 있는 치료적 활동(작업)을 통해 최대한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고 능동적으로 사회생활에 참여함으로써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치료, 교육하는 보건의료의 한 분야이다(대한작업치료사협회, 2002). 작업치료는 환자들이 일상생활 동작(예, 식사

*본 연구는 2005년도 인제대학교 연구비 지원에 의한 논문임.
교신저자: 허진강
주 소: 200-853 강원도 춘천시 동면 장학리 790, 전화: 031-240-9330, E-mail: jghur7@empal.com

하기, 옷입기, 신변처리 능력, 이동기술 등)들을 스스로 하여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치료하는 분야로써 주로 소아질환, 근골격계질환, 신경계질환, 노인성질환, 정신질환 등과 관련되어 환자들의 상지기능 및 손기능 증진, 인지재활, 보조기 제작, 구강훈련, 일상생활동작훈련, 의자차(Wheel-chair)훈련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작업치료사 직무분석, 2000). 작업치료사는 정신적, 신체적, 발달적, 정서적 문제를 가진 사람들을 개별적이거나 그룹으로 치료하며, 일상생활과 직업적 또는 놀이 환경에서 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다(Sabonis-Chafee & Hussey, 1998). 또한 작업치료사는 의료 재활과 사회 재활에 있어서 선진국 사회변화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국민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정원미 등, 2000). 국내에 작업치료가 도입된 것은 한국전쟁 이후이고, 미국의 선교사 Louise Grubb가 대구 동산병원에서 작업치료를 처음 실시하였다. 점차 재활의 중요성이 증가되면서 2006년 현재 38개 대학에서 3,000여명이 교육을 받고 있으며, 2,000여명의 작업치료사가 대학병원, 의원, 재활 장애인 복지관, 노인병원, 직업재활, 교수, 특수크리닉센터, 특수학교, 산업재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Cherniss(1980)의 연구에 따르면, 의사, 사회사업가, 간호사, 교사, 보모, 작업치료사 등과 같은 대인서비스직업(human service profession)들은 스트레스가 높은 직업으로 나타났다. 병원 간호사의 경우 직무 스트레스가 간호의 질을 낮게 할 수도 있으며 더 나아가 간호 대상자의 생명을 위험하게 할 수도 있다는 연구가 있다(허혜경, 1982). 미국 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소(NIOSH, 1990)에 따르면 직무 스트레스란 업무상 요구사항이 근로자의 능력이나 자원, 요구와 일치하지 않을 때 생기는 유해한 신체적 정서적 반응이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사회 심리적 스트레스란 사회나 학교에서의 대인관계로부터 생기는 갈등, 좌절, 불안 등에 의해 발생하는 스트레스이다(장현갑과 강성군, 2002). 작업관련성 스트레스는 개인이 상황이나 환경을 조절할 수 없을 때 발생하며, 대부분의 스트레스는 일의 요구도가 높고 통제력이 낮을 때 발생한다(Karasek, 1987). 직무 스트레스는 적정할 경우에는 심신활동을 촉진시키고 활성화시켜 직무수행에 있어서 문제해결에 창조력을 발휘하게 되고, 동기유발을 시켜 생산성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지만, 스트레스의 정도가 과도할 경우 역기능이 작용하여 심신을 황폐시키거나 직무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직무 스트레스의 유발 요인은 물리적 환경, 직무자율성, 직무불안정성, 조직체계, 직장문화, 업무보상, 상사와의 관계, 직무요구도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될 수 있다.

지금까지 직무 스트레스에 관하여 간호사(김매자와 구미옥, 1984; 이경진, 2000), 물리치료사(이충휘, 1990), 의무기록사(최은미와 김영훈, 2003), 치과위생사(허희영 등, 2002) 등 많은 보건의료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있었으나, 국내에서의 작업치료사에 대한 연구는 직무만족도 관련 요인에 대한 연구(권정아, 2005)가 있지만 아직 미비한 실정이다. 작업치료사는 활동하는 수가 많지 않고 사회적으로 인식이 부족하여 이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작업치료사는 보건의료 전문직의 하나로 직접적인 환자 치료 및 환자와의 접촉을 통해 장애인들의 현실 적응과 재활 의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작업치료사의 직무 스트레스를 낮추고 직무만족도를 향상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작업치료사들을 대상으로 스트레스에 관한 설문 조사를 통하여 일반적 특성, 직무 특성, 건강 특성, 성격 특성, 직무 스트레스, 사회 심리적 스트레스 등의 특성들 간 관련성을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서 작업치료사들이 스트레스를 인식하고 관리하여 환자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여하기 위함이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2005년 1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국내 대학병원, 종합병원, 복지관, 재활 관련 기관 등에 근무하는 작업치료사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작업치료사 102명에게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배포하여 총 91명의 설문지를 회수하였다.

설문지의 내용은 일반적 특성, 직무 특성, 건강 특성, 성격 특성, 직무 스트레스, 사회 심리적 스트레스로 영역을 나누어 실시하였다. 일반적 특성은 성별, 연령, 최종학력, 결혼상태로 나누어 조사하였고 직무 특성은 급여, 근무기간, 직무내용, 직위, 고용형태, 근무형태, 평균근무시간을 조사하였으며, 건강 특성은 흡연, 음주, 커피, 운동, 여가활동, 수면의 변수를 조사하였다. 성격 특성은 박용성(2005)의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지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경쟁심, 시간에 대한 압박, 보스기질, 다방면에 대한 욕구, 식사시간 등의 항목들을 4점 척도로 평가하고, 시간에 대한 압박감, 일과 이후 일에 대한 압박감, 일의 한계점, 일의 만족도, 참을성의 항목들은 2점 평가하였다. 최종적인 평가는 4점 척도는 취득점수를 3으로 나누어 총 점수가 5점 만점, 2점 척도는 취득점수를 그대로 인정하여 총 점수가 5점 만점으로 모든 항목을 더한 총합점수는 10점 만점을 기준으로 평가되었으며, 조사된 설문의 중앙값을 기준으로 고점수 집단을 A형 타입 성격으로 저점수 집단을 B형 타입 성격으로 나누어 평가하였

다. 직무 스트레스의 평가는 물리환경, 직무요구, 직무자율, 관계갈등, 직무불안정, 조직체계, 보상부적절, 직장문화로 조사하였고, 이 평가방법은 한국스트레스연구회에서 작성한 스트레스 평가방법을 작업치료사의 실정에 맞게 수정하여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평가의 척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의 4점 Likert척도를 사용하였고 각 응답에 대해 1, 2, 3, 4점을 부여하여 평가하였다. '매우 그렇다'는 직무 스트레스가 많은 수준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는 직무 스트레스가 적은 수준으로 평가된다.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평가는 장세진(1993)의 평가방법 중 18개 문항으로 축소시킨 방법을 사용하여 스트레스 수준을 평가하였다. 설문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의 4점 Likert척도를 사용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관련된 항목에 대한 스트레스 점수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방법으로 평가된 총 점수 54점 중 27점 이상일 경우 '스트레스 고위험 집단', 9점~26점일 경우 '잠재적 스트레스 집단', 8점 이하일 경우 '건강 집단'으로 평가하였다.

설문의 분석은 통계프로그램인 SPSS 12.0을 사용하였으며, 통계적 유의성은 유의 수준 0.05를 기준으로 하였다.

3. 결 과

3.1 일반적 특성

표 1은 일반적 특성에 대해 나타내고 있다. 일반적 특성에서 성별은 남자가 19.8%, 여자는 80.2%이었으며, 연령은 20대가 60.4%, 30대가 36.3%, 40대는 3.3%이었다. 최종학력은 대학원 이상이 17.6%, 대졸 및 전문대학 졸업이 82.4%이었으며, 결혼상태는 미혼이 65.9%, 기혼이 31.9%, 기타는 2.2%이었다.

표 1. 일반적 특성

일반적 특성	분류	N(%)
성별	남	18(19.8)
	여	73(80.2)
연령	20대	55(60.4)
	30대	33(36.3)
	40대	3(3.3)
최종 학력	대학원 이상	16(17.6)
	대졸 및 전문대학	75(82.4)
결혼 상태	미혼	60(65.9)
	기혼	29(31.9)
	기타	2(2.2)

3.2 직무 특성

표 2는 직무 특성에 대해 나타내고 있다. 직무 특성에서 급여는 2000 미만이 37.4%, 3000 미만이 31.9%, 4000 미만이 19.8%, 5000 미만은 11.0%이었으며, 근무기간은 5년 미만이 64.8%, 10년 미만이 13.2%, 15년 미만이 17.6%, 20년 미만이 2.2%, 25년 미만은 2.2%이었다. 직무지형태는 종합병원이 44.0%, 의원이 8.8%, 복지관이 4.4%, 기타는 42.9%이었으며, 직위는 치료사가 79.1%, 팀장이 13.2%, 실장이 5.5%, 과장은 2.2%이었다. 고용형태는 정규직이 91.2%, 비정규직은 8.8%이었고, 근무형태는 주5일이 69.2%, 비정규직이 8.8%이었으며, 근무시간은 40시간 미만이 64.8%, 45시간 미만이 25.3%, 50시간 미만이 5.5%, 55시간 미만이 2.2%, 55시간 이상이 2.2%이었다.

표 2. 직무 특성

	분류	N(%)
급여	2000 미만	34(37.4)
	3000 미만	29(31.9)
	4000 미만	18(19.8)
	5000 미만	10(11.0)
근무 기간	5년 미만	59(64.8)
	10년 미만	12(13.2)
	15년 미만	16(17.6)
	20년 미만	2(2.2)
	25년 미만	2(2.2)
직무지 형태	종합병원	40(44.0)
	의원	8(8.8)
	복지관	4(4.4)
	기타	39(42.9)
직위	치료사	72(79.1)
	팀장	12(13.2)
	실장	5(5.5)
	과장	2(2.2)
고용 형태	정규직	83(91.2)
	비정규직	8(8.8)
근무 형태	주5일	63(69.2)
	주6일	28(30.8)
근무 시간	40시간 미만	59(64.8)
	45시간 미만	23(25.3)
	50시간 미만	5(5.5)
	55시간 미만	2(2.2)
	55시간 이상	2(2.2)

3.3 건강 특성

표 3은 건강 특성에 대해 나타내고 있다. 건강 특성에서 흡연을 하는 사람이 12.1%, 흡연을 하지 않는 사람은 87.9%이었고, 음주를 하는 사람은 40.7%, 음주를 하지 않는 사람은 59.3%이었으며, 커피량은 0잔이 24.2%, 1잔이 31.9%, 2잔이 23.1%, 3잔이 13.2%, 4잔이 2.2%, 5잔 이상이 5.5%이었다.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는 사람은 29.7%,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은 70.3%이었고, 여가활동을 하는 사람은 35.2%, 여가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은 64.8%이었으며, 수면이 충분한 사람은 28.6%, 수면이 충분하지 않은 사람은 71.4%이었다.

표 3. 건강 특성

건강 특성	분류건	N
흡연	유	11(12.1)
	무	80(87.9)
음주	유	37(40.7)
	무	54(59.3)
커피량	0잔	22(24.2)
	1잔	29(31.9)
	2잔	21(23.1)
	3잔	12(13.2)
	4잔	2(2.2)
	5잔 이상	5(5.5)
규칙 운동	유	27(29.7)
	무	64(70.3)
여가 활동	유	32(35.2)
	무	59(64.8)
수면 시간	충분	26(28.6)
	불충분	65(71.4)

3.4 일반적 특성과 직무 스트레스의 관계

표 4는 일반적 특성별 직무 스트레스에 관한 분석 내용을 나타내고 있다. 성별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연령에 따라서는 연령이 낮을수록 직무자율성과 보상부적절에 대한 스트레스가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반면에 연령이 높을수록 직무불안정성에 대한 스트레스가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최종학력에 따라서는 학력이 높을수록 보상부적절에 대한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결혼상태에 따라서는 미혼의 경우 보상부적절에 대한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기혼의 경우 직무불안정성에 대한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3.5 직무 특성과 직무 스트레스의 관계

표 5는 직무 특성별 직무 스트레스에 관한 분석 내용을 나타내고 있다. 급여에 따라서는 급여가 낮을수록 직무자율성, 관계갈등, 조직체계, 보상부적절에 대한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급여가 높을수록 직무불안정성에 대한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근무기간에 따라서는 근무기간이 길수록 직무불안정성에 대한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직무지형태에 따라서는 종합병원의 경우 직무자율성에 대한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의원의 경우 직무불안정성에 대한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직위에 따라서는 직위가 낮을수록 직무자율성에 대한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직위가 높을수록 직무불안정성에 대한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 일반적 특성과 직무스트레스의 관계

	분류	N	직무요구도		직무자율성		관계갈등		직무불안정		조직체계		보상부적절		직장문화	
			평균	P	평균	P	평균	P	평균	P	평균	P	평균	P	평균	P
성별	남	18	25.3	.375	6.0	.343	9.3	.694	16.4	.257	15.0	.584	16.5	.117	11.3	.149
	여	73	26.3		5.6		9.6		15.5		15.4		17.7		10.4	
연령	20대	55	25.0	.107	5.7	.000	8.4	.114	14.7	.000	15.7	.404	18.4	.000	10.5	.208
	30대	33	24.1		4.2		9.2		17.2		15.8		16.5		9.9	
	40대	3	30.0		2.3		8.3		19.0		13.7		13.3		12.3	
최종 학력	대학원 이상	16	26.1	.240	4.5	.114	8.8	.913	16.2	.228	14.8	.123	16.1	.023	10.4	.998
	대졸 및 전문대	75	24.5		5.2		8.7		15.4		15.9		17.8		10.4	
결혼 상태	미혼	60	25.3	.388	5.0	.228	8.5	.395	14.9	.001	15.8	.116	18.2	.001	10.6	.279
	기혼	29	23.9		4.4		9.0		16.8		15.2		16.0		10.0	
	기타	2	23.0		4.0		9.5		17.0		19.0		14.5		8.5	

표 5. 직무 특성과 직무스트레스의 관계

	분류	N	직무요구도		직무자율성		관계갈등		직무불안정		조직체계		보상부적절		직장문화	
			평균	P	평균	P	평균	P	평균	P	평균	P	평균	P	평균	P
급여	2000 미만	34	24.4	.156	5.3	.033	9.4	.037	14.6	.003	16.6	.034	18.0	.032	10.0	.296
	3000 미만	29	24.7		4.9		8.7		15.5		15.1		17.8		10.9	
	4000 미만	18	23.9		4.3		7.6		16.8		15.0		16.9		9.9	
	5000 미만	10	27.9		3.7		8.3		16.7		14.1		15.1		11.1	
근무 기간	5년 미만	59	25.4	.306	5.1	.665	8.9	.117	14.8	.001	15.9	.555	17.9	.074	10.4	.357
	10년 미만	12	23.9		4.3		9.4		16.8		15.0		17.6		9.8	
	15년 미만	16	25.2		4.7		7.4		17.2		15.1		15.6		10.0	
	20년 미만	2	20.1		5.0		9.5		16.5		14.5		18.5		12.0	
	25년 미만	2	29.0		5.0		8.5		15.5		13.5		18.0		13.0	
직무지 형태	종합병원	40	25.6	.553	5.6	.030	8.7	.370	14.3	.010	15.4	.969	17.8	.730	10.4	.083
	의원	8	24.9		4.9		9.7		17.1		15.7		16.7		9.1	
	복지관	4	22.2		4.2		9.5		16.0		16.0		18.0		8.2	
	기타	39	25.1		4.4		8.4		16.1		15.6		17.3		10.8	
직위	치료사	72	25.4	.207	5.8	.020	9.6	.758	15.3	.024	15.6	.305	17.7	.294	10.4	.345
	팀장	12	23.7		4.8		9.4		16.2		15.4		16.1		10.5	
	실장	5	23.4		4.4		10.4		18.2		16.4		18.0		11.2	
	과장	2	30.0		3.5		8.0		20.0		12.0		16.0		13.5	
고용 형태	정규직	83	25.0	.519	5.6	.433	9.5	.408	15.9	.012	15.6	.004	17.4	.318	10.5	.733
	비정규직	8	26.1		5.1		10.3		13.2		12.5		18.5		10.8	
근무 형태	주5일	63	24.5	.067	5.4	.419	9.4	.464	15.8	.510	15.1	.254	17.4	.844	10.5	.616
	주6일	28	26.4		5.7		9.9		15.4		15.8		17.6		10.7	
근무 시간	40시간 미만	59	24.2	.042	5.5	.659	9.5	.875	16.0	.014	15.1	.572	16.9	.076	11.0	.123
	45시간 미만	23	26.7		5.4		10.0		15.8		15.4		18.7		9.7	
	50시간 미만	5	26.8		5.2		9.6		13.4		16.2		17.6		11.2	
	55시간 미만	2	29.5		7.0		9.5		10.0		15.0		18.0		9.0	
	55시간 이상	2	29.0		6.5		8.0		17.5		18.5		20.5		8.5	

고용형태에 따라서는 비정규직일수록 직무불안정성과 조직체계에 대한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근무형태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근무시간에 따라서는 근무시간이 많을수록 직무요구도, 직무자율성, 관계갈등, 조직체계, 보상부적절에 대한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3.6 건강 특성과 직무 스트레스의 관계

표 6은 건강 특성별 직무 스트레스에 관한 분석 내용을 나타내고 있다. 흡연, 음주, 커피, 운동, 여가활동 등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수면에 따라서는 수면시간이 충분하지 않는 집단의 경우 직무요구도와 직장문화에 대한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3.7 일반적 특성과 사회 심리적 스트레스의 관계

표 7은 일반적 특성별 사회 심리적 스트레스에 관한 분석 내용을 나타내고 있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자와 여자 모두 잠재적 스트레스 집단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여자의 경우 남자에 비해 고위험 스트레스 집단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령에 따라서는 연령이 낮을수록 고위험 스트레스 집단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최종학력에 따라서는 학력이 낮을수록 고위험 스트레스 집단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결혼상태에 따라서는 미혼의 경우 고위험 스트레스 집단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기혼의 경우 잠재적 스트레스 집단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스트레스 집단과 고위험 스트레스 집단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직무지형태에 따라

표 6. 건강 특성과 직무스트레스의 관계

	분류	N	직무요구도		직무자율성		관계갈등		직무불안정		조직체계		보상부적절		직장문화	
			평균	P	평균	P	평균	P	평균	P	평균	P	평균	P	평균	P
흡연	유	11	25.3	.524	6.1	.332	9.5	.928	17.0	.130	15.0	.761	17.2	.768	11.4	.210
	무	80	26.2		5.6		9.6		15.5		15.3		17.5		10.4	
음주	유	37	26.5	.317	5.4	.691	9.3	.356	15.3	.305	15.2	.832	17.3	.656	10.4	.543
	무	54	25.6		5.6		9.8		16.0		15.4		17.6		10.7	
커피량	0잔	22	26.3	.724	6.0	.229	10.1	.214	14.9	.142	15.1	.966	17.5	.700	11.2	.348
	1잔	29	25.3		5.0		8.7		16.4		15.1		16.7		10.6	
	2잔	21	27.0		5.3		9.6		15.4		15.6		18.1		10.6	
	3잔	12	26.2		5.9		9.8		15.2		15.9		17.8		9.2	
	4잔	2	24.5		5.5		9.5		20.0		14.5		17.5		11.5	
	5잔 이상	5	24.6		6.4		11.8		16.0		15.0		18.2		10.2	
규칙적 운동	유	27	26.4	.511	5.4	.547	9.0	.217	16.0	.481	15.0	.570	17.5	.872	11.2	.089
	무	64	25.8		5.6		9.8		15.5		15.4		17.4		10.3	
여가 활동	유	32	26.5	.408	5.6	.926	9.5	.892	15.8	.974	15.4	.786	17.6	.972	10.4	.720
	무	59	25.7		5.5		9.6		15.7		15.2		17.5		10.6	
수면량	충분	26	27.6	.029	5.3	.243	9.2	.394	16.2	.278	15.7	.450	17.5	.973	11.8	.001
	불충분	65	25.5		5.8		9.7		15.5		15.2		17.6		10.0	

표 7. 일반적 특성과 사회 심리적 스트레스의 관계

	분류	건강 집단 N(%)	잠재적 스트레스 집단 N(%)	고위험 스트레스 집단 N(%)
성별	남자	4(22.2)	10(55.6)	4(22.2)
	여자	19(26.0)	33(45.2)	21(28.8)
연령	20대	11(20.0)	26(47.3)	18(32.7)
	30대	10(30.3)	16(48.5)	7(21.2)
	40대	2(66.7)	1(33.3)	0
최종 학력	대학원 이상	6(37.5)	7(43.8)	3(18.8)
	대졸	17(22.7)	36(48.0)	22(29.3)
결혼 상태	미혼	14(23.3)	28(46.7)	18(30.0)
	기혼	8(27.6)	15(51.7)	6(20.7)
	기타	1(50.0)	0	1(50.0)

서는 큰 차이가 없었다.

3.8 직무 특성과 사회 심리적 스트레스의 관계

표 8은 직무 특성별 사회 심리적 스트레스에 관한 분석 내용을 나타내고 있다. 급여에 따라서는 급여가 낮을수록, 근무기간에 따라서는 근무기간이 길수록, 직위에 따라서는 직위가 높을수록, 고용형태에 따라서는 비정규직인 경우, 근무형태에 따라서는 주 6일 근무인 경우, 근무시간에 따라서

표 8. 직무 특성과 사회 심리적 스트레스의 관계

	분류	건강 집단 N	잠재적 스트레스 집단 N	고위험 스트레스 집단 N
흡연	유	3(27.3)	5(45.5)	3(27.3)
	무	20(27.3)	38(47.5)	22(27.5)
음주	유	6(16.2)	20(54.1)	11(29.7)
	무	17(31.5)	23(42.6)	14(25.9)
커피량	0잔	8(36.4)	11(50.0)	3(13.6)
	1잔	8(27.6)	11(37.9)	10(34.5)
	2잔	3(14.3)	11(52.4)	7(33.3)
	3잔	3(25.0)	6(50.0)	3(25.0)
	4잔	1(50.0)	1(50.0)	0
	5잔 이상	0	3(60.0)	2(20.0)
규칙 운동	유	9(33.3)	13(48.1)	5(18.5)
	무	14(21.9)	30(46.9)	20(31.3)
여가 활동	유	11(34.4)	14(43.8)	7(21.9)
	무	12(20.3)	29(49.2)	18(30.5)
수면 시간	충분	8(30.8)	14(53.8)	4(15.4)
	불충분	15(23.1)	29(44.6)	21(32.3)

는 근무시간이 많을수록 잠재적 스트레스 집단과 고위험 스트레스 집단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직무지형태에 따라서는 큰 차이가 없었다.

3.9 건강 특성과 사회 심리적 스트레스의 관계

표 9는 건강 특성별 사회 심리적 스트레스에 관한 분석 내용을 나타내고 있다. 흡연에 따라서는 흡연을 하지 않는 경우, 음주에 따라서는 음주를 하지 않는 경우, 커피에 따라서는 커피량이 적을수록 건강 집단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운동에 따라서는 운동을 하지 않는 경우, 여가활동에 따라서는 여가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수면시간에 따라서는 수면시간이 충분하지 않는 경우 고위험 스트레스 집단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9. 건강 특성과 사회 심리적 스트레스의 관계

	분류	건강 집단 N (%)	잠재적 스트레스 집단 N (%)	고위험 스트레스 집단 N (%)
급여	2000 미만	5(14.7)	17(50.0)	12(35.3)
	3000 미만	7(24.1)	14(48.3)	8(27.6)
	4000 미만	6(33.3)	8(44.4)	4(22.2)
	5000 미만	5(50.0)	4(40.0)	1(10.0)
근무 기간	5년 미만	14(23.7)	28(47.5)	17(28.8)
	10년 미만	3(25.0)	5(41.7)	4(33.3)
	15년 미만	4(25.0)	8(50.0)	4(25.0)
	20년 미만	1(50.0)	1(50.0)	0
	25년 미만	1(50.0)	1(50.0)	0
직무지 형태	종합병원	11(27.5)	19(47.5)	10(25.0)
	의원	0	3(37.5)	5(62.5)
	복지관	0	2(50.0)	2(50.0)
	기타	12(30.8)	19(48.7)	8(20.5)
직위	치료사	18(25.0)	31(43.1)	23(31.9)
	팀장	3(25.0)	7(58.3)	2(16.7)
	실장	2(40.0)	3(60.0)	0
	과장	0	2(100.0)	0
고용 형태	정규직	22(26.5)	38(45.8)	23(27.7)
	비정규직	1(12.5)	5(62.5)	2(25.0)
근무 형태	주5일	22(34.9)	24(38.1)	17(27.0)
	주6일	1(3.6)	19(67.9)	8(28.6)
근무 시간	40시간 미만	18(30.5)	24(40.7)	17(28.8)
	45시간 미만	4(17.4)	11(47.8)	8(34.8)
	50시간 미만	1(20.0)	4(80.0)	0
	55시간 미만	0	2(100.0)	0
	55시간 이상	0	2(100.0)	0

3.10 성격 특성과 사회 심리적 스트레스의 관계

표 10은 성격 특성별 사회 심리적 스트레스에 관한 분석 내용을 나타내고 있다. 성격에 따라서는 A형 성격 조사자가 B형 성격 조사자에 비해 잠재적 스트레스 집단과 고위험 스트레스 집단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10. 성격 특성과 사회 심리적 스트레스의 관계

	분류	건강 집단 N(%)	잠재적 스트레스 집단 N(%)	고위험 스트레스 집단 N(%)
성격 특성	A형	7(16.7)	22(52.4)	13(31.0)
	B형	16(32.7)	21(42.9)	12(24.5)

4.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재활치료 분야의 많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작업치료사에 대한 스트레스 수준을 조사하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작업치료사의 일반적 특성에서는 작업치료사의 대다수가 여자로 조사되었고 20대가 가장 많았으며, 대졸 및 전문대학 졸업과 미혼이 대부분이었다. 직무 특성에서는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의 급여, 근무기간은 5년 미만, 직무지형태는 종합병원, 직위는 치료사, 고용형태는 정규직, 근무형태는 주5일, 근무시간은 40시간 미만이 많았다. 건강 특성에서 흡연을 하지 않는 사람이 대부분이었고, 음주를 하지 않고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지 않으며, 여가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이 대체로 많았다. 커피량은 보통 0잔에서 3잔까지 마시고, 대체로 수면이 충분하지 않았다.

일반적 특성별 직무 스트레스에서는 연령이 낮을수록 직무자율성과 보상부적절에 대한 스트레스가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반면에 연령이 높을수록 직무불안정성에 대한 스트레스가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학력이 높을수록 보상부적절에 대한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미혼의 경우 보상부적절에 대한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기혼의 경우 직무불안정성에 대한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직무 특성별 직무 스트레스에서는 급여가 낮을수록 직무자율성, 관계갈등, 조직체계, 보상부적절에 대한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급여가 높을수록 직무불안정성에 대한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작업치료사를 대상으로 한 다른 연구들에서도 급여가 작업치료사의 직무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원인임을 보고하고 있다(Wressle & Oeberg, 1998; Leonard & Corr, 1998). 근무기간이 길수록 직무불안정성에 대한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종합병원의 경우 직무자율성에 대한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의원의 경우 직

무불안정성에 대한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직위가 낮을수록 직무자율성에 대한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직위가 높을수록 직무불안정성에 대한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비정규직일수록 직무불안정성과 조직체계에 대한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근무시간에 따라서는 근무시간이 많을수록 직무요구도, 직무자율성, 관계갈등, 조직체계, 보상부적절에 대한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재 대부분의 종합병원에서 인턴제의 도입으로 비정규직이 증가하며 적절한 급여를 받지 못한 채 일하게 됨으로써 작업치료사가 전문 인력으로서의 충분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한대성, 2006). 권정아(2005)의 작업치료사의 직무만족도 관련 요인의 연구에서 직무 특성과 관련된 직무 스트레스에서는 비정규직이고 서울근무자, 그리고 월 급여가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 직무불안정에 대한 스트레스가 유의하게 높았고, 치료시간이 30분 이하에서는 물리환경과 직무요구에 대한 스트레스가, 주당 근무시간이 40시간 미만은 직무자율에 대한 스트레스가, 휴식시간이 30분 이하에서는 물리환경, 직무요구, 직무불안정에 대한 스트레스가, 1일 치료 환자수가 15~19명에서는 물리환경, 조직체계에 대한 스트레스가, 보조 인력이 없는 군에서는 직장문화에 대한 스트레스가 유의하게 높았다. 이러한 결과들은 작업치료사들의 현실을 반영해 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물리치료실에서는 업무보조 인력이 있으나 작업치료실에는 보조 인력이 없어 치료 이외에도 전산입력이나 치료시간예약과 같은 잔무로 인하여 업무시간 외에 처리를 해야 하고, 비정규직제도가 있는 대학병원에서는 정규 직원의 경우 해마다 바뀌는 비정규직의 교육과 업무에 대한 인수인계 문제로 인해 개인 업무 외에 한 층 더 업무량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건강 특성별 직무스트레스에서는 수면시간이 충분하지 않는 집단의 경우 직무요구도와 직장문화에 대한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일반적으로 직무 스트레스의 유발 요인으로는 물리적 환경 요인(조명, 소음, 온도. 사무실 설계, 사회적 밀도 등), 조직 관련 요인(직업 요건, 조직 구조, 조직 풍토, 경력발달, 집단 갈등 등), 직무 관련 요인(과제 특성, 기술, 역할갈등, 의사결정참여 등), 개인 관련 요인(A형 행동, 욕구 및 가치, 통제 소재, 능력 및 경험 등), 조직 외 관련 요인(가족, 이주, 경제적 지위, 사회적 지원 등)이 있다(이종목과 박한기, 1998). Wressle & Oeberg(1998)는 작업치료사의 업무 관련 스트레스 요인을 자원과 요구, 전문적 가치, 보상, 환자 및 동료와의 관계 등의 요인으로 설명하였으며, 스트레스와 신체적 증상(통증) 및 심리적 증상들과의 상관성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일반적 특성별 사회 심리적 스트레스에서는 남자와 여자 모두 잠재적 스트레스 집단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여자의 경우 남자에 비해 고위험 스트레스 집단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령이 낮을수록 고위험 스트레스 집단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학력이 낮을수록 고위험 스트레스 집단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미혼의 경우 고위험 스트레스 집단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기혼의 경우 잠재적 스트레스 집단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급여가 낮을수록, 근무기간이 길수록, 직위가 높을수록, 비정규직인 경우, 주6일 근무인 경우, 근무시간이 많을수록 잠재적 스트레스 집단과 고위험 스트레스 집단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흡연을 하지 않는 경우, 음주를 하지 않는 경우, 커피량이 적을수록 건강 집단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운동을 하지 않는 경우, 여가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수면시간이 충분하지 않는 경우 고위험 스트레스 집단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성격에 따라서는 A형 성격 조사자가 B형 성격 조사자에 비해 잠재적 스트레스 집단과 고위험 스트레스 집단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재까지 작업치료사의 스트레스 요인에 대한 관련 연구가 미비한 실정이므로 병원에서 장애인 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치과위생사의 업무관련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결과들과 비교해 보았다. 물리치료사의 업무 관련성 스트레스를 보면 이충휘(1990)의 연구에서 물리치료사의 스트레스와 관련 있는 변수에는 근무기관, 일일 치료 환자수, 직무만족, 요통 등이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반적 특성 중에서 성, 결혼, 교육변수는 스트레스와 관련이 없었다(이충휘, 1990). 같은 물리치료사 집단연구에서 안소윤(2002)은 직무만족과 직장애착의 경우 성별로는 차이가 없지만 연령별로는 40세 이상에서 직무만족과 직장애착이 높게 조사되어 직무만족과 직장애착은 직급이 높을수록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종합병원이나 보건소 등의 경우가 직무만족이 높게 조사되어 근무환경과의 관련성도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지현(2003)의 연구에서는 학력이 높을수록 작업환경에서 스트레스 받는 스트레스가 높았으며 대인관계로 인하여 발생하는 스트레스는 학력이 낮을수록 높았다. 물리치료사의 스트레스 변인은 근무환경, 업무로 인한 조직 환경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조사대상자의 85%가 이직경험을 가지고 있어 열악한 근무환경 및 작업환경을 알 수 있었다. 이태식(2003)의 연구에서도 물리치료사들은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중 근골격계질환을 경험하고 있으며 조사 대상자의 53.4%가 요통을 호소하는 등 신체적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다. 또한 방사선사의 스트레스 연구에서 정홍량(2005)은 근무환경 요인시 방사선 피폭으로 인한 영향을 우려한 스트레스 요인이 조사되었고 역할관련 요인에서 역할갈등과 역할의 모호성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직무갈등

의 경우 갈등이 심할수록 스트레스가 높다는 것이 조사되었다. 직무자율성에서 자율성이 높을수록 스트레스를 적게 받고 있으며 역할과다나 역할과소는 직장 이직 및 동기부여의 저하를 유발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과위생사의 경우 오정숙(2005)의 연구에서 치과위생사는 구강교육과 구강진료 보조업무를 당당하여 역할과 책임이 증대하고 있지만 낮은 사회적 평가, 열악한 근무환경, 낮은 보수, 장기적인 직업 안정성의 결여 등과 같은 조직적인 요인과 개인적인 요인으로 인한 낮은 직무만족으로 인하여 평균 직업수명이 짧고 이직률이 높다고 조사하였다. 하지만 연령 및 교육 높을수록 직무만족이 높았으며 지역별 근무기관요인에 따라 직무만족이 다르게 조사되었는데 서울 및 부산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는 직무만족이 높았고 읍, 면 지역에서 직무성과가 낮게 나타났다. 의사결정 참여와 책임성과 자율성의 부여 그리고 권한분배의 적정성 등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고 개방적인 병원조직은 직무만족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에서 직무만족 및 스트레스는 개인적 특성과 직무 특성 등의 요인에서 비롯된다고 생각된다.

위의 연구결과에서 작업치료사의 경우 직무, 사회 심리적 스트레스가 많이 발생하는 직종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작업치료사들이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는 스트레스를 최소화함으로써 업무손실을 예방하고 작업치료 분야의 발전을 위해서 본 연구를 바탕으로 병원과 복지관 및 재활관련 기관에서 보다 정확한 스트레스 요인들을 찾아내서 제거하고 충분한 스트레스 해소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올바른 직장 문화 정착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작업치료사의 환자를 치료하는 업무 특성상 발생하기 쉬운 근골격계 질환으로 인한 신체적 스트레스에 관한 추후 연구를 통하여 건강관리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권정아, 작업치료사의 직무만족도 관련 요인,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산업보건학과 보건학석사학위 논문, 2005.

문장원, 작업치료의 심리재활적 요소, 특수교육학회지, 19(1), 161-176, 1998.

박용성, 허원준, 황석기, 정병용, 통신업 근로자의 직무 스트레스와 사회 심리적 스트레스의 관련성. 대한안전경영과학회지, 7(3), 73-84, 2005.

안소윤, 김원중, 허영배, 물리치료사의 근무실태와 직무만족 및 직장애착, 대한물리치료학회지, 14(4), 2002.

양영애, 작업치료의 실태 및 현황, 건강관리학회지, 1(1), 2005.

오정숙, 치위생사 직무만족 영향 요인에 관한 분석, 구강연구지, 29(2), 2005.

이종목, 박한기, 직무 스트레스 척도 제작에 관한 연구(1), 대한심리학회지, 4(1), 241-262, 1998.

이지현, 물리치료사의 스트레스와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 대한물리치료사학회지, 10(2), 2003.

이충휘, 물리치료사의 업무관련성 스트레스, 대한물리치료학회지, 2(1), 1990.

이태식, 물리치료사 업무 특성과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관심도 연구, 대한물리치료사학회지, 10(2), 2003.

이태화,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태도: 재활간호사, 작업치료사, 물리치료사간의 비교연구, 간호학탐구, 1998.

임숙희, 간호사의 성격유형에 따른 직무 스트레스와 대처방식, 정신간호학회지, 14(4), 2005.

장세진,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직무 스트레스 현황 및 실태, 1993.

장현갑, 강성군, 스트레스와 정신건강, 2002.

정홍량, 손부순, 종합병원 방사선상의 근무환경에 따른 지역별 스트레스 수준 분석, 한국환경과학회지, 14(4), 2005.

한대성, 작업치료사의 직무 스트레스 관련 요인, 연세대학교 보건환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Leonard, C. and Corr, S., Source of stress and Coping Strategies in Basic Grade Occupational Therapists, The British Journal of Occupational Therapy, 61, 257-262, 1998.

Wewssle, E. and Oeberg, B., Work-Related Stress among Occupational Therapist in Sweden, The British Journal of Occupational Therapy, 61, 467-472, 1998.

◐ 저자 소개 ◑

❖ 양 영 애 ❖ otyya62@inje.ac.kr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산업의학과 의학박사
현 재: 인제대학교 의생명공학대학 작업치료학과 조교수

❖ 허 진 강 ❖ jghur7@empal.com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산업의학과 의학박사
현 재: 한림성심대학 물리치료과 교수

❖ 노 영 만 ❖ ymroh@hanyang.ac.kr
카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과 의학박사
현 재: 한양대학교 환경 및 산업의학연구소 교수

❖ 이 규 창 ❖ leegc76@hanmail.net
삼육대학교 물리치료학과 박사과정
현 재: 강동성심병원 재활의학과 물리치료실

논 문 접 수 일 (Date Received) : 2007년 01월 17일
논 문 수 정 일 (Date Revised) : 2007년 06월 07일
논문게재승인일 (Date Accepted) : 2007년 07월 13일